제 5 권 3 호

kpcm NEWSletter

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| 날마다 새롭게 (2018 표어)

그리스도의 십자가 >>> 김광식 목사

기독교의 핵심을 단번에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은 무엇일까?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드러내고,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담는 하나의 상징은 '그리스도의 십자가'다. 그러나 그리스도가 달리신 '십자가'는 사실 매력적인 상징은 아니었다. "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(신 21:23)"는 말씀에서처럼,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의 상징에 달리셔야 했으며,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을까.

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. 그 중 하나는 "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(신 27:2)"는 것이다. 모세가 이러한 큰 돌을 준비시킨 이유는 율법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("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(신 27:3)"). 모세는 율법이 기록된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라고 명령하는데, 그 에발 산은 바로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었다. ("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(신 11:29)")

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율법이 기록된 돌을 세운 에발 산에 돌단을 쌓되,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명한다("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(신 27:5)"). 그리고 그 제단에서"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(신 27:7)"고 하였다.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다. 그런데 그 화목이 쇠 연장이 닿지 않은 돌단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,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이다.

하나님과의 화목이 발생하는 장소가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준다. "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(갈 3:11)," 율법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. 그렇기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서,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이다("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(갈 3:13))."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,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해,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("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(고후 5:18)").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.

이렇기에 '십자가'는 기독교의 핵심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: "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(갈 6:14). 왜 바울은 14 절을 시작하면서 '그러나'라고 말하는가? "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(갈 6:13)" 바로 할례, 즉 십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. 이에 대해 바울은 "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(갈 6:15)"라고 말한다. "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"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뜻한다.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전부이다. 그리스도의 십자가.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. "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(갈 6:17)."

당회소식 >>> 당회서기

- 6 월 3 일 주일에 단기 선교 Fund raising 을 위해서 점심 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 앞으로 유아부/Toddler(24-36 개월)와 유치부 Preschool(3-4 세)/Kindergarten(5 세)를 분리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.
- 소친교실에 있던 목장 배치도를 Lobby 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새가족 환영회를 3 월 24 일 오후 5 시에 교회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.
- 5 월 12 일 토요일에 전교인이 참석하여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 아리조나에 있는 Heart and Seoul 복음 방송 핸즈 찬양팀 초정 날짜가 4 월 7-8 일로 변경 확정 되었습니다.

각 기관 보고 >>>

관리 위원회	• 2/3(토), 2018 년도 제 1 회 운전봉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8 명이 참석하여 봉사의 사명과 안전 운전, 차량 관리 및 비상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였습니다. • 성전 십자가 조명 설치, 교실과 화장실 형광등 교체, 성전 밖 스피커 교체를 위해 박춘용 장로님, 성계용 집사님, 박종문 집사님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 • 교회 밴의 노후된 배터리를 박양근 집사님께서 교체해 주셨습니다. • 2 월 둘째 주에 패딩이 부착된 접이 의자 100 개를 구입하였고, 노후 및 파손된 철제 의자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입니다. • 2 월 셋째 주에 방충 (개미, 쥐)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. 교인들께서는 교실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삼가고 청결과 위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.
교육 위원회	•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이 현재 진행중입니다(동반자 17 명). 문의사항이 있으면 김한나 집사님께 연락해 주십시오. • 2/16 복음방송 찬양집회 (4/7-4/8) 준비를 위한 2 차 회의를 했습니다.
목양 위원회	• 2 월 등록 교인 목장 배치 현황입니다. 이정숙 (한마음), 임재홍/장원예 (행복), 박동욱/ 박지해 (믿음), 최창현 (디모데), 이정문/이은영 (방주), 김정환/박주연 (방주), 한세영/권은선 (방주)
선교 위원회	• 신규 후원 선교사로 일본 동경 드림교회 서유석 선교사가 당회 승인되었습니다. • 오는 6 월 선교집회가 준비중입니다 - 일시 6/1-3, 강사 LA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님 http://churchtheway.com/wp/
예배 위원회	• 3/17-18 최경열 교수님을 모시고 음악팀 세미나를 합니다(게시판 참고). • 예배 중의 음향 개선을 위하여 본당의 고음용 스피커를 수리하였습니다. • 2/10 엘리에셀 찬양팀의 함민아 자매 귀국 송별회를 했습니다. • 3/4 어머니 핸드벨팀의 첫모임이 있었고, 3/18 에는 어린이 핸드벨팀 첫모임이 있습니다.
영접 위원회	• 새가족 (전년도 4 월-10 월) 영입식이 2/25(주일) 3 부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(사진). • 4 차 새가족 교육이 3/18(주일) 오후 1:30 에 어린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. • 새가족 환영회가 3/24(토) 오후 5 시에 소친교실에서 있습니다(babysitting 제공). • 새가족 영입식이 4/1(부활주일)에 연합예배 중에 있습니다.
제 1 남선교회	• 2/21 사순절 수요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. • 매주 목요일 2 시에 교회에 모여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(문의: 신대현 회장)
제 1 여선교회	• 2/10 기도세미나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. • 2/11 돈가스 바자가 있었습니다. • 2/28 제 2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사순절 수요예배를 주관했습니다. • 3/3 home free shelter 방문 봉사가 있었습니다. • 3/25 예배 중에 임원단 특송이 있습니다. • 3 월 성경 암송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.
제 2 여선교회	• 2/22 새교우 환영회를 했습니다. • 2/28 제 1 여선교회 연합으로 사순절 수요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. • 3 월 한 달 동안 로뎀 카페를 운영합니다. • 매주 금요일 (10:30-12:00) 교회에서 3-40 대 여성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(문의: 김지현 집사).
한글학교	• 4/1 부활절 휴가로 휴강한 후 4/8 수업재개합니다.

새가족 소개 및 영입식 >>>

이름: 이숙희
소속: 제 1 여선교회

이름: 조호동/손민아
소속: 제 2 남녀선교회

이름: 윤숙희
소속: 제 1 여선교회

새가족 (전년도 4 월-10 월) 영입식

포스터로 만나는 행사 안내 >>>

뉴스레터 3 월호(통권 49 호) >>>

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발행인	뉴스레터사역팀
위원장	정상헌
디자인/편집	오은아
원고교정	이은실
취재기자	박은영
사진	각 기관
원고수집	각 기관장
인쇄/복사	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
발송	뉴스레터사역팀
발행처	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
발행일	2018 년 3 월 18 일

기사제보 및 원고제출

kpcmnews@gmail.com

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
5840 Humboldt Avenue N.
Brooklyn Center, MN 55430
763.560.6699 / 763.560.2222(f)
www.kpcm.org / kpcm@kpcm.org

추천도서 >>> 도서팀

"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"

유기성목사의 로마서 강해 설교